

조선총독부의 초등학교 수신교과서에 나타난 植民性 형성 고찰

李 鉉 菑*

目 次

1. 서론 : 식민지 아동에 기호화된 ‘좋은 일본인’ 표상
2. 식민지 아동의 植民性으로서 사유와 행동양식
 - 2-1. 상하관계와 예속성
 - 2-2. 규율과 순종성
 - 2-3. 맹목성과 극단성
 - 2-4. 근로와 성실·책임성
 - 2-5. 청결성과 열등성
3.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과 사회관
 - 3-1. 봉건성과 가족관
 - 3-2. 민족성과 반민족성 그리고 반항(관)성
 - 3-3. 일방성·호전성·패권성
 - 3-4. 식민지 근대론과 패배관
4. 결론 : 식민지 아동의 정체성 혼란과 상실
참고문헌·요지

1. 서론 : 식민지 아동에 기호화된 ‘좋은 일본인’ 표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아동에게 행한 교육 목표는 식민지 지배 체제에 순응할 근대인의 양성과 육성이었다. 일본아동에게 주어진 ‘좋은 일본인적 표상과 기호’는 식민지 아동에게도 ‘좋은 국민’, 혹은 ‘좋은 일본인’이었다. 좋은 일본인적 식민지 아동은 자

* 서남대학교 교양교과과 조교수 일본학

1)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앞으로 ‘조선총독부수신서’라 칭함)의 선행교과서라 할 수 있는 일본 수신서의 궁극적인 국민성의 목표와 좌표는 ‘좋은 일본인’이라는 기호이다. 이 기호는 영국이 근대인의 육성을 위해 젠틀맨(Gentleman)을 국민의 이상으로 하고, 프랑스는 시민(Citoyene)의 단어를 통해 근대적인 국민성을 통합시켜 나갔듯이, 서구 근대인의 육성에 걸맞게 일본 문부성은 수신서에서 각 학년마다 ‘착한 어린이(よいこども)나 ‘좋은 일본인(よい日本人)이란 제목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학습케 함으로써 ‘순량하고 충량한 신민을 육성해 나갔다. 수신교과서를 통해 통제된 일본아동은 국가 공교육의 통제와 규율에 따른 국민성을 주입받았으며, 그 국민성은 ‘좋은 일본인’이었다. 唐澤富太郎(1968), 『教科書の歴史-教科書と日本人の形性』, 創文社, pp.1~17, p.222 참조

유로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신념이나 가치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규제화되고 통제된 교육정책이나 교과내용을 통해 자발적이고 자동화된 인간²⁾으로 양성되었다.

식민지 아동에 대한 좋은 일본인 육성은 일본의 수신교육이나 정책과 유사한 경향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특징은 바로 국체사상에 근거한 천황제 지배에 따른 황국신민 육성이라는 동반된 구조에서 나타난다. 수신서는 식민지 아동이나 조선인을 신민(臣民)으로 규정해 놓고 천황에 대한 무조건 복종과 순종을 가르쳤다. 식민지적 특수성은 식민지 아동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식민성'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 나타난 행동양식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식민성은 식민지 아동의 사회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아동의 사고와 행동양식 및 사회관에 수반된 구조는 <IV-(4)-24> 「좋은 일본인」³⁾에서 도출할 수 있다.

천황폐하(쇼와 천황)는 메이지 천황·다이쇼 천황의 뜻을 따라 신민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점점 우리나라를 융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나, 이러한 고마운 황실을 받들고 있는 것은 이 이상 다시없는 행복입니다. 우리 신민은 진심으로 황실을 존경하고, 기미가요의 만세를 축하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일·대제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일(式日)입니다. 국민인 사람은 이 축제일의 의미를 잘 알아 축일에는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제일(祭日)에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라의 번영을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요시히사 친왕(能久親王)이 존귀한 몸을 가지고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한 마음을 우리러 받들고,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진 사람들이 천황과 나라를 위해 한 몸을 바친 정신을 배워, 나라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는 충군애국의 길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에 있어서는 가족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은 자신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는 것이므로 힘써 이것에 대해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위생에 신경 쓰고 일에는 열심히 하며, 책임을 중하게 하고, 서로 간에 도우며, 학교를 사랑하고 향토를 훌륭하게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나아가 교육을 받고, 발명을 하며, 자선을 베풀어 나가면 세상은 한층 잘 살게 되고 나라는 더욱 융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에 열거한 가르침에 따라 좋은 일본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본인이 되려면 많은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2) 본고에서 '자동화'의 의미는, 일제가 식민지 아동으로 하여금 국가와 천황을 위해 멸사봉공의 국가주의 사상과 정신을 갖게 함으로써, 국가와 천황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이 자동적·맹목적·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국민성의 육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총독부는 규제와 통제된 교육시스템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비자발성을 지닌 식민지 아동에게 통치하기에 적합한 신민 육성으로서 식민성을 주입하여 자동화된 행동을 유발시켰다.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선총독부수신서의 텍스트는 1996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복간된 저본인 총28권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후 『修身書』의 표기 방법은 (기수)-(권수=학년)-(과수)의 순서로 하되, IV가 권4-24과의 경우는 <IV-(4)-24>로, V기-요이갓편(→)-15과는 <V-요이갓편(→)-15>로, V가 권2-15과는 <V-(권2)-15>로 표기하도록 한다. 특히 V기의 1, 2학년의 책권수는 요이갓편(→·그이며 3~6학년의 경우는 권1~4)이다.

중요합니다. 진심으로부터 나온 행실이 아니면 설령 좋은 행동과 같이 보여도 가치가 없습니다.<IV-(4)-24> 「좋은 일본인」

위에서는 봉건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인 상하관계와 예측성이 천황과 신민관계로 일원화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식민지의 봉건적인 전통주의에 따른 규율과 규칙을 근대적인 시스템에 따라 제도화한 것이었고, 가족관계를 통해 천황과 국가에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순종이나 맹목성을 유발시켰으며, 이것이 제Ⅳ·Ⅴ기⁴⁾에는 과시증적 경향을 띤 극단성이나 패권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식민지 특수성, 즉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와 규율을 통한 착취의 특징인, “일에는 열심히 하며, 책임을 중하게 하고...”라는 말에서 보듯이 근로와 성실·책임성이 항상 동반되었으며, 반면에 청결을 통한 열등성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식민지 아동에게 주어진 식민성으로서 사고와 행동양식은 오랜 통치기간과 반복된 이데올로기교육으로 말미암아 사회관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났다. 위의 「좋은 일본인」이라는 내용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유교윤리인 봉건성과 가족관이 동반되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민족성과 반민족적 경향을 수반한 것이었고, 여기에 반항이나 방관성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수신서에서는 일본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국사교과서와 같은 침략사관(전승사관)과 식민사관을 통해 호전성을 주입시켰고, 식민지 아동에게는 보다 철저히 열등적인 식민성을 자각시켰다. 이러한 경향에는 국가주의와 초국가주의적 요소인 파쇼주의가 시기가 갈수록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방성과 패권적인 일탈적 경향을 띠고 있다. 일제의 초국가주의나 파쇼주의는 제Ⅳ기 수신서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여 국민학교 시기인 제Ⅴ기 수신서에서는 국제명징(國體明徵)에서 팔굉일우(八紘一宇)라는 동아시아 해방을 넘어 극단적인 초국가주의

4) 각 기수별 수신교과서의 종류와 시기 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실천관계는 아래 <표> 와 같다

<표> 조선총독부수신서의 이데올로기 특징과 실천관계

| 기수 | 교과서의 종류 | 시 기 | 이데올로기 특징 | 이데올로기 실천관계 |
|-------|------------------------|-----------|---|--|
| 제 I | 보통학교수신서 | 1913-1921 | 무단·문화·유화정책의 혼합기로서, 일선동조론·일사동인·내지연장주의 등 동화이데올로기 강화 강조 | 일제의 국가주의와 천황주의에 적합하고 식민지 통치에 순응할 충량한 국민육성과 순종주의 근로주의적 시세에 민도에 맞는 인간 육성 |
| 제 II | 보통학교수신서 | 1922-1927 |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말살과 내선융화 등의 문화정치와 동화이데올로기 강화 | 덕풍직종과 식민지 착취를 대상에 둔 충량한 신민 육성 |
| 제 III | 보통학교수신서 | 1928-1937 | 농촌진흥운동과 저축운동 등을 비롯한 식민지 약탈의 정책과 이에 따른 근로주의 등 실천도덕 중시 | 근로주의적 정신과 착취적 대상으로서 충량한 신민 육성 |
| 제 IV | 초등수신 | 1938-1941 |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의 전쟁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총력운동 등 강력한 식민지 교육인 완전한 내선일체 강화의 동화정책과 국제에 따른 충량한 황민화교육 강화 | 병참기로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할 산업적인 근로주의와 국제명징을 통한 식민지 일본인 육성·황국신민연성 교화 |
| 제 V | 착취어린이(1~2)·초등수신(원 3~6) | 1942-1945 | 국민학교기의 국민성형성을 위한 황국민연성 강화와 전시체제하의 파쇼적인 전투적인 인간 육성 | 산업과 전쟁에 참여할 근로주의적이고 전투적인 멸사봉공의 황국신민 육성과 교화 |

인 전쟁주의가 식민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듯 아동의 사고나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관에 영향을 준 몇 가지 양상이 전체적으로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을 이루는 요소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사유와 행동양식 그리고 사회관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적 경향이 식민지 아동의 탄생으로 귀결되어 식민성(植民性)⁵⁾으로 작용하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식민지 아동의 사유와 행동양식에 따라 식민성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발전하여 사회관으로 이어졌는지 이 둘 사이의 접근을 통해 고찰하다 보면, 일제가 수신서를 통해 목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에 깃들여 있는 정체성의 형성과 혼란까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고찰 결과 근대조선의 식민성에 따른 근대성이나 근대인의 형성 근대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근원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식민지 아동의 植民性으로서 사유와 행동양식

2-1. 상하관계와 예속성

조선총독부수신서에 나타난 상하관계와 예속성은 동양의 봉건적인 유교사상에서 두드러진 형태이다. 일제의 자국에 대한 유교문명적 질서와 봉건성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데 그대로 적용되었고, 이것이 일제의 지배를 보다 수용하기 쉽게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의 유교문명적 형태의 틀 위에 천황제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교묘히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아동의 위치가 규정되었으며, 아동은 자발적인 행위의 주체적 존재가 아닌 타율적이며, 타자화된 존재였다. 아동에게 제시된 타자는 부모나 친구, 형제들이었으며, 나아가 사회와 국가였고, 이것은 결국 천황을 위한 존재성이었다.

수신서에서 선생과 제자의 상하관계와 예속성은 <V-ヨイコドモ(二)-20> 「착한 어린이」라는 단원이 대표적이다. 선생과 제자의 상하관계나 예속성은 부모와 자식 나아가 천황과 신민(아동)의 관계를 공고히 해주는 중개자로서 계몽 역할이었다. 아동에게 있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천황에 대한 경외심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제V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타 모든 기수의 각 학년마다 나타난다. 저학년과는 달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5) ‘식민성은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시작한 이래 수신서나 그 밖의 자료에서 아예 일찍부터 식민지 아동을 일제의 종속적인 이념에 따라 주형한테서 나온 용어이다. 일제는 아동 개인의 신체나 정신, 의식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에 따라 식민지 지배에 순응하는 식민성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식민성’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보겠다. 여기에서 ‘식민성’은 자율적인 특성이 아니라 타율적인 것으로, 일제는 이것을 식민지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켜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성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식민지인의 보편적인 인간성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존황주의자나 근황주의자 등을 다수 내세워 아동과 스승관계를 교묘히 존경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배후에는 천황제 지배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교과서 편찬의도였다. 상하관계와 예속성은 또한 가정·가문·조상과의 관계에 나타난 동양의 자연스런 유교적 전통이었고, 인륜의 기본 덕목이었다. 아래 <V-(6)-2> 「우리 집」은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는 한 가정의 장으로서 업무에 정진하시고, 어머니는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버지를 도와 가사를 돌보시며, 모두 한 가정의 번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증조부로부터 조부모·부모로 우리 집안은 선조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선조님들이 집안의 번영을 꾀한 마음은 부모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깊으신 선조의 은혜를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업무에 힘쓰고, 천황폐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면 한 가족의 번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됩니다.···그러므로 한 가족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합쳐 집안의 명예와 번영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선조에 대해서는 훌륭한 후손, 자손에 대해서는 존경받는 선조가 되도록 끊임없이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V-(6)-2> 「우리 집」

위에서 보듯이 한 가정의 모습과 선조와의 관계, 그리고 미풍양속은 선조에 대한 제사처럼 천황폐하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며, 이것이 한 가족의 번영과 가문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결국 한 가정의 존재 근거는 천황제와 굳건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는 <I-(4)-7> 「충효」처럼 천황과의 상하관계나 예속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하관계와 예속성은 선생(스승)과 제자의 매개를 통해 부모와 자식과의 효를 근간으로, 천황과 신민의 관계로 확대시켜 천황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의 충군애국으로 나아가게 한 근본 구도였고, 식민성의 토대였다.

2-2. 규율과 순종성

2-2-1. 예의·예절

규율과 순종성은 서로 연관된 행동양식이다. 일제의 식민지인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과 통제는 피지배자에게 순종과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자신들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수신서를 통해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모든 기수의 1학년에서는 식민성 형성에 필요한 기본 덕목을 중심으로 예의와 순종, 정직, 규칙 등을 가르쳤다. 그중에 <I-(1)-20> 「가정」에서는 예의바른 아이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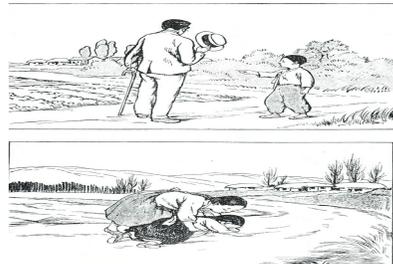


그림 1 <V-ヨイコドモ(一)-16> 「친절」

- (1)-22> 「잘못을 숨기지 마라」에서는 정직함을, 그리고 <V-코イコドク(一)-16> 「친절」에서는 삽화와 더불어 일본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어린이를 등장시킴으로 철저히 식민성을 유발하는 덕목으로 가르쳤다. <II-(6)-11> 「예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의는 사람을 존경하는 성의를 밖으로 나타낸 것입니다...예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잘 지키면 상호 마음을 열어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 사회의 질서도 스스로 정리되겠지요. 우리들은 학교에 관한 축제일이나 식일(式日) 등의 예법은 말할 필요도 없이 행차에 대한 경례나 보통 연장자에 대한 예의 등을 몸에 익혀 성의를 가지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II-(6)-11> 「예의」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수신서에서는 천황폐하에 대한 경례나 연장자, 특히 일본인에 대한 예의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수신서에서는 이러한 예절과 같은 덕목에 대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예의바른 식민성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배자의 규율과 통제를 그대로 순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예절은 인간사에 있어 가장 인간관계를 유지해 주는 덕목이었다. 그런데 일제는 순수한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덕목을 오히려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2-2-2. 순종·정직

예절과 마찬가지로 식민성의 고착화는 순종·정직에 대한 덕목에서 더욱 두드러져 나타난다. 조선총독부수신서에는 일본수신서보다도 더욱 순종·정직에 대한 항목을 강화하여 가르쳤다. <I-(2)-16> 「정직」에서는 정직한 점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II-(2)-18> 「정직」에서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 보니 잔돈이 남아 그것을 돌려주었다는 정직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덕목이 아동 개개인의 올바른 인간성 형성이나 인간관계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의 예절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통제에 잘 따라 줄 식민성을 유발하는 덕목으로서 수신서가 담고 있는 의도였다.

순태의 집에서는 암탉을 이웃에 팔았습니다. 어느 날, 순태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암탉이 돌아와 알을 낳았습니다. 순태는 그 달걀이 자기 집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곧 그것을 이웃에 가지고 갔습니다. 이웃 사람은 순태의 정직함을 칭찬했습니다.<III-(3)-14> 「정직」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정직 등과 관련된 덕목들은 모든 기수, 매 학년별로 나타난다. 여기에 나타난 정직 등은 장사하는 사람이나 마부,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 등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직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매개시켜 주는 덕목이자, 순수한 인간 행동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신서에서는 정직이나 순종 등의 덕목을 아동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행동표현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국가와 천황을 위해 순종하며, 정직하게 따를 줄 아는, 즉 지배체제에 적합한 순종적인 인간육성으로 삼아 버렸다. 이러한 관계는 곧 사회관이나 국가관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2-2-3. 규칙·규율

수신서에 나타난 모든 덕목에는 규칙·규율의 강제성이 내재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강제적인 규칙은 점점 아동이 자신을 통제하게 만들고, 이러한 자발적인 통제는 지배자의 통제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나 약속,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통제된 인간은 근대가 만들어낸 가장 커다란 규칙이자 통제의 메커니즘이었다. 이렇게 통제된 인간은 곧바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상하관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기대하게 만든다. 수신서에 나타난 다양한 규칙이나 규율은 <I-(1)-22> 「규칙을 지켜라」에서의 단순한 규칙으로부터 그림 2의 「관청의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일제의 통치에 따르는 규율이나 법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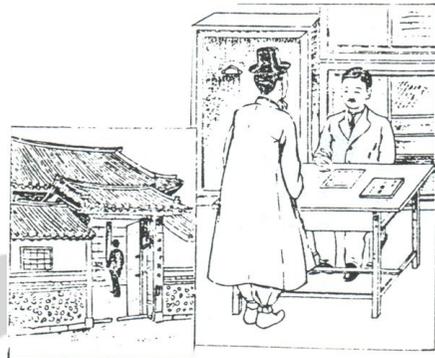


그림 2 <I-(2)-19> 「관청의 명령에 복종하라」

어떤 사람이 관청에 왔습니다. 관리가 친절하게 무엇인가 말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듣고 있습니다. 관청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I-(2)-19> 「관청의 명령에 복종하라」

이러한 규칙·규율 이외에도 수신서에는 다양한 규칙·규율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을 유발하는 문장의 표현도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해야만 한다>거나 <~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제성을 띤 문장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신서에는 <~하는 것이 옳다>거나 <~하는 것이 나쁘다>는 판단형의 문장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해라>거나 <~ 하지 마라>라는 명령형도 여기에 수반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장의 표현은 규율과 강제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들이며, 이러한 문장표현은 식민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듯이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지를 요구한다.

2-3. 맹목성과 극단성

앞에서 살펴본 강제형이나 판단형, 명령형 등의 문장 표현의 특징은 아동의 자발적인 사고를 단절하게 만들며, 아동을 보다 규율적이고 순종적인 통제형의 인간으로 만든 원인이 되었다. 수신서의 여러 덕목이 보다 근대적이고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덕목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로 채워져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신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공부, 내지 관련된 책들이나 놀이 등은 모두 근로나 군대 이야기,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 아동의 정신적 사고와 행동을 획일적이고 맹목적, 혹은 극단적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Ⅳ기에서 제Ⅴ기로 이어지면서 더욱 노골화되어 있다.

다가타, 소포가 도착했다. “아버지, 가와타씨로부터 왔어요.”라고 형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포를 뜯었습니다. 소포 안에서 비행기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와, 우리들의 그림책이다”라고 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V-코이코드편 2-7> 「소포」

위의 비행기 그림책에서 보듯이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도구 등은 모두 호전적인 전쟁주의만을 부추기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단절된 사고를 유발시킨다. 수신서에 나타난 맹목성과 극단성은 <V-(5)-9> 「군신의 모습」의 단원에서 장렬하게 죽은 사람을 오히려 군신으로 추앙하는 경우로 일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맹목성과 극단성은 그밖에도 <KV-(3)-3> 「일본의 어린이」, <KV-(5)-2> 「사쿠마 艇長」, <KV-(5)-8> 「히사다 선장」, <KV-(5)-21> 「북만주의 이슬」, <KV-(6)-18> 「日本刀」 등에서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지는 식민지 아동과 청년학도들을 근로동원이나 전쟁터의 총알받이로 이끌어내기 위한 파쇼주의가 만들어낸 제Ⅴ기수신서의 실체였다.

2-4. 근로와 성실·책임성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 행동양식에는 식민지 아동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식민성으로서 근로와 성실·책임성이 항상 더불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제Ⅰ기수신서부터 줄곧 강조해온 것이었으며, 만주사변 이후 더욱 두드러진 식민지인의 덕목이 되었는데, 1932년의 농촌진흥운동이나 산업생산력의 확보 필요성으로 인해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1940년의 국민총력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로애호정신의 함양, 공동의 협동정신, 직업활동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단련이 요구되었으며, 여기에 강제적인 노동력 배치에 순종하는 성실성과 책임성도 뒤따랐다. 이러한 경향은 <V-(6)-4> 「산업전사의 편지」가 대표적이다.

(1) 공장에서 농촌으로

...그 때 공장장님은 우리들 소년산업전사의 마음각오에 대해 “최전선의 군인아저씨에게 지지 않도록 일하자. 모든 직장은 그대로 戰線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격려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 형님의 기분으로, 혼신을 다하여 일에 전념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결심입니다. 전쟁이 오래 동안 계속됨에 따라 점점 생산의 증가가 중요하게 되어 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하여 직장이나 지역 봉공에 힘 쓰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나는 더욱 몸을 단련하고, 팔을 튼튼히 하여 훌륭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잘 전해 주십시오.

(2) 농촌에서 공장으로

...금년 가을도 틀림없이 쌀의 공출에는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전날 국민학교에서 시국강연이 있어 나도 여자청년대원의 한 사람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식량의 증산이 탄환이나 비행기에도 뒤지지 않고 중요하다고 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농촌에서도 공터라는 공터는 완전히 같았습니다만, 국민학교의 교정도 파헤쳐 훌륭한 감자밭이 생겼습니다. 농촌도 공장도 지금 필사의 몸부림으로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대동아전쟁에 이겨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V-(6)-4> 「산업전사의 편지」

위의 <V-(6)-4> 「산업전사의 편지」에는 다양한 키워드가 나타난다. 이 단원은 어느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정책이나 실천행위들이 중첩되어 있다. 여기에는 특히 국가총동원법(1938)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운동(1938)으로 이어져 소년산업전사단과 근로보국대로 활동한 오누이의 관계, 생산확충운동이나 공출(1943)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식민지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기보다 청년이상이나 어른 세계의 근로와 정신력, 책임감과 성실성을 요구하는 일탈적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

2-5. 청결성과 열등성

청결성은 문화적 예속주의 가운데 하나로, 일제가 조선인의 결점이나 단점을 거론하며, 상대적인 강조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나타난 유형이었다. 열등성은 < I-(3)-1> 「금상천 황폐하(=메이지 천황)」에서 보듯이, 조선 황제의 자리를 대신한 천황이 조선의 정치에 개입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돈까지 하사했으며, 따라서 천황의 은혜를 잊지 말고 충군의 마음을 새기라는 내용의 인정(仁政) 정치의 강조는 오히려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갈등과 열등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 I-(4)-16> 「분수를 지키자」에서 보듯이 그 열등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문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요컨대 ‘위를 쳐다보지 마라’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지 마라’는 말은, 쓸데없이 위를 올려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분수를 알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무슨 일이던지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 사람은 쓸데없이 위를 올려다보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 등을 잘 고려하여 제각기 그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Ⅰ-(4)-16> 「분수를 지키자」

이처럼 분수와 처지를 알고, 알아서 행동하라와 같은 열등성의 각인은 이후 수신서의 내용에서 다양한 덕목을 통해 더욱 주입되었다. 더구나 일본의 우수성과 조선의 열등의식의 각인은 삽화나 등장인물들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장차 본받아야 할 인물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천황이나 장군, 학자나 무사, 사업가들을 내세워 그들의 학문적 업적이나 성실, 효행과 덕행, 봉사나 헌신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조선인의 역사적 인물 중에 이이와 이황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의 학문적 업적보다는 효행이나 어릴 적 修學 등과 관련된 지극히 편협한 사실들만을 내세웠다. 이 외에도 <Ⅱ-(3)-15> 「저축」에 ‘강호선’이라는 인물을, <Ⅰ-(4)-12, 13> 「효행」, 「근검」에 ‘정민혁’을, <Ⅱ-(3)-3> 「일을 열심히 하라」, <Ⅲ-(3)-12> 「일을 열심히 하라」에서 ‘대식’, ‘인식’, ‘창식’, ‘옥순’ 등 조선아이들의 이름을 들어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과 근로정신 등을 주입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등장인물은 일본인물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열등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열등의식을 조작하여 지배체제에 순응할 식민성의 자각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다.

열등성의 의식은 청결주의와도 직결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청결을 강조하면서 더러운 민족, 더러운 아이, 더러운 식민지인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결점 중 단적인 예는 <Ⅰ-(3)-18> 「미신을 피하라」든가 <Ⅱ-(1)-17> 「거짓말하지 마라」나 <Ⅱ-(1)-19>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Ⅲ-(1)-8> 「몸을 깨끗이 하라」, <Ⅲ-(4)-8> 「위생」에서 나타난다. 고학년에서는 <Ⅲ-(5)-7> 「공중위생」이나 <Ⅲ-(5)-11> 「청렴결백(廉潔)」 등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단점이 되는 것, 즉 예의가 부족하다거나 절제가 없다거나 낭비가 심하다거나 하여 <Ⅱ-(3)-14> 「검약」, <Ⅲ-(3)-8> 「예의」, <Ⅴ-(5)-7> 「예의」 등과 같은 민족적인 자존심에 대한 열등의식을 고취시켜 교육시킴으로써 문화적인 종속화를 가속화시켰다. 위의 몇 가지 덕목들은 근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자아개발이나 인격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나,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규율과 통제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하여 국가와 천황을 위한 자동화된 식민성이 유발됨을 간과할 수 없다.

3. 식민지 아동의 식민성과 사회관

3-1. 봉건성과 가족관

일제는 유교적 가부장적인 질서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가정에서의 효를 유교윤리의 근본덕목으로 삼으면서 식민지 통치를 지속시켜 나갔다. 수신서에는 삼강에 해당하는 덕목으로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父爲子綱), 신하가 임금을 섬기며(君爲臣綱),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夫爲婦綱)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등의 상하관계의 봉건성을 천황과 신민의 관계, 천황가의 종가와 분가라는 가족국가관으로 공고히 하였다. 오륜에 해당하는 덕목에 있어서도 수신서에는 夫婦有別이라는 덕목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으나, 천황은 신민을 자식처럼 보살피며(君臣有義), 부모와 자식이 서로 친함(父子有親)이 있어야 하듯,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며, 어른과 아랫사람은 차례가 있어야 하고(長幼有序),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과 우정이 있어야 한다(朋友有信)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여러 덕목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유교적 봉건윤리와 가족관계의 윤리는 중앙집권체제의 기본 바탕이 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민족적 정서와 통치를 굳건히 하는 윤리가 되었다.

수신서에 나타난 봉건성과 가족관은 < I-(4)-16 > 「분수를 지키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 II-(6)-6 > 「남자의 임무와 여자의 임무」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한 가정과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언급하였다. 봉건적인 가족관은 2-1의 상하관계나 예속성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확대된 사회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 II-(6)-5 > 「조상과 집안」이라는 단원이 대표적이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직업에 매진하여 한 집안의 가장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한 집안의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고, 함께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행복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조상을 존경하는 것은 자연의 인정이요 또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한 집안의 사람이 모두 잘 업무에 충실하고 공공의 일에 힘을 쏟으면 단지 한 집안을 번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명예 또한 높게 되는 것입니다. ...< II-(6)-5 > 「조상과 집안」

이처럼 아버지가 한 집안의 가장이듯, 가족이 모두 각자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가족과 조상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단원을 보면 천황가는 큰 집안으로서 존재하며, 천황은 신민을 자식처럼 보살핀다는 논리로 대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식민지 아동은 상당한 심성의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부모나 선조는 일본의 조상이나 선조 더 나아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나 진무 천황(神武天皇)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일제는 강제적으로 국체사상을 강화하여 내선

일체적 관점으로 주입시켰다.

3-2. 민족성과 반민족성 그리고 반항(관)성

수신서에 나타난 민족적 경향은 거의 모두 일본 인물, 특히 존황지사나 근황주의자 내지 군인들로 나타난다. 일본인의 민족의식은 본인이나 가정의 존재로 나타나기보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나 존황주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신서는 국가나 천황을 위해 헌신한 충렬지사들을 내세워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르침으로써 선인들과 마찬가지로의 충성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본적인 민족성과 국가주의적 경향에 대해 식민지 사회에서는 오히려 반민족적인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인이 중국사람과 싸우는데 어째서 조선사람인 우리가 현금과 위문주머니를 보내야 하는가?”⁶⁾라는 식의 조선민중의 의식과 행동에 상당한 반민족적인 경향도 엿보인다.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반항은 지원병제도에서 두드러졌다 “일본인은 조선사람이 증가하는데 위협을 느끼고, 이들을 최전선에 내세워 탄환막이로 삼아 모두 죽이려는 것이다”⁷⁾라는 등 지원병제도의 본질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선의 민족주의와 연결시켜 저항을 하였다. “조선에는 조국이 있다 조선은 몇 천 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을 위해서 특별지원병이 되어 전쟁에 나가는 것은 조국을 전혀 모르는 자이다. 무슨 이유로 일본의 군인이 되어야 하는가?”⁸⁾ 민중들은 조선총독부의 지원병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고, 조선의 독립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섰다.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는 일본에 대한 적대의식이 중일전쟁 이후 상당히 노골적이었고, 일본의 패전에 대한 바람이나 희망으로 나타났으며, 총독부의 전쟁동원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유언 등에서 뚜렷이 나타난다.⁹⁾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쟁에 나간 일본놈들은 전부 죽어 버려라”라든가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지면 좋겠다”는 데서 시작하여 중국의 광대한 국토에 대한 소박한 신뢰감으로 “중국은 일본의 몇 백 배나 크니까 전쟁을 오랫동안 끌면 결국은 일본이 진다.”는 등 전통적으로 중주국 의식에서 오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일본의 패전에 대한 희망은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화가 진전되어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¹⁰⁾ 일본의 패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조선의 독립과 표리일체로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일본의 패전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은 일제의 전쟁동원정책에 대한 비협조와 방관적 경향, 또는 절망과 비관으로 나타났다.

6) 『特高月報』, 1938년 4월분.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서울 : 일조각, p.18.

7) 『特高月報』, 1939년 11월분, p.178.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p.22 재인용.

8) 『月報』 제6호, p.6.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p.22 재인용.

9)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p.16.

10)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같은 책 pp.16 ~7 참조

이러한 세상민심이나 동향과는 반대로 교과서는 철저히 상반된 경향을 띠었다. 수신서에서는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가르쳤다. 그것은 다음 <Ⅲ-(4)-13> 「초혼제」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초혼제라는 제사가 각지에서 행해집니다. 이것은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은 군인이나 경찰관 등을 제사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덕택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에는 마음을 드려 참배할 뿐만 아니라, 모셔져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진력하도록 마음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쿄에는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제사지내는 야스쿠니 신사가 있고, 매년 참배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제일에는 칙사를 세우고, 임시대제에는 천황·황후 양폐하의 행차하시는 것도 있습니다.<Ⅲ-(4)-13> 「초혼제」

위의 「초혼제」에서는 나라와 천황을 위해 죽은 군인과 경찰관을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멸사봉공의 충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Ⅳ-(4)-2> 「國歌」에서는 일본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미가요에 대한 의미와 신민의 마음가짐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일본의 민족적인 경향은 국체사상에 근거한 신칙으로부터 만세일계의 황통인 <Ⅲ-(5)-16> 「황통」과, <Ⅲ-(6)-12> 「조선의 시정」의 충량한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자세로 이어졌다. 그리고 <Ⅳ-(4)-24> 「좋은 일본인」에서는 천황폐하의 가르침을 통해 폐하와 국가를 위해 야스쿠니신사에 모셔진 사람들처럼 좋은 일본인이 되라고 하였다. 또한 <Ⅳ-(6)-15, 16>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에서는 그러한 국민정신을 이어받자고 조서까지 내렸다. <Ⅳ-(6)-18> 「황실과 신민(2)」에서는 메이지 천황이 병으로 죽었을 때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 니쥬바시(二重橋) 앞에 수많은 시민이 무릎을 꿇고 병낫기를 기도하고, 신사나 사찰 전국의 마을과 부락 모두 마찬가지였다는 사실까지 언급하였다. <Ⅴ-(6)-19> 「일본의 어머니」에서는 나라와 폐하를 위해 적진에 돌진한 특별공격대나 군신으로 추앙받은 이들은 모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며, 강한 민족적 경향으로 이끌었다.

3-3. 일방성 · 호전성 · 폐권성

식민지 아동에게 행해진 수신교육은 예절, 습관, 성실, 근면, 근로, 저축, 책임 등의 덕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식민지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일방적인 교육이었다. 이러한 아동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은 모두 일방적으로 아동의 희생이나 행동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관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이러한 덕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 학습케 함으로써 일방적·맹목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와 천황을 위해 충성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

정에서 강자나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이나 강제행위는 용인되거나 미화되었다. 이러한 일방적 경향은 한편 호전성이나 패권적인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배자의 권력적 욕망이 아동의 정신이나 행동에 직접 이입되는 경향을 낳았다. 수신서의 이데올로기의 강조나 학습은 일방적인 전승사관적 우수성만을 각인시켰기 때문에 일본의 승리는 아동 자신의 승리로 직결되며, 권력자의 지배는 아동의 생취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지배권력은 아동과 더불어 패권적인 일탈적 경향을 띤다.

군인 아저씨, 건강하세요? 우리도 씩씩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곧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에는, '군인 아저씨'의 놀이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번 신사에 참배를 하며, 군인 아저씨가 건강하게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양 철이나 빈병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비행기나 전차를 만들어 드립니다. 위문소포에 입장기를 넣었습니다. 만세를 부를 때는 이 입장기를 흔들어 주십시오. 내가 쓴 글과 그림을 보세요. 중국의 어린이들에게도 보여 주십시오. 군인 아저씨, 안녕.< V ヨイコドモ (二)-9> 「군인 아저씨에게」

위의 학교라는 공간적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신사참배나, 전쟁이야기, 저축장려운동, 위문편지 보내기 등 전시동원체제 속에 편입된 것이었다. 여기에 제시된 지문은 일방적이고도 패권적인 일탈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이 <V-(4)-21> 「대륙과 우리들」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만주국에 괴뢰정부를 세운 이후 중국까지 재패하려는 일방성과 패권성으로 나타난다. 만주사변을 통한 중국으로까지 확대된 호전성은 이후 <V-(6)-22> 「새로운 세계」에서 보듯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일방성과 호전성 그리고 패권성은 모두 식민지 아동을 전쟁형 인간으로 육성하여 전투에 동원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강화라 할 수 있다.

3-4. 식민지 근대론과 패배관

일제의 조선통치 이데올로기의 강화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논리가 둘 사이에 놓여 있으며, 동화정책 등의 이데올로기가 내선일체를 향한 구체적 정책들로 조선인들을 유인하여 황군이 되도록 하였지만 그 간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적 위치가 식민지인 개인의 신체와 민족성에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수성을 통한 열등의식의 각인이 수신서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에 항상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수신과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침략사관(전승사관)적 경향을 통한 지배자로서 일본의 우수성과 더불어 식민지에 대한 수혜주의적 경향에서 열등의식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조선에 대한 지배교육이 정치에 대해서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러한 지배교육은 <Ⅲ-(6)-11, 12> 「조선의 시정(1, 2)」와, <Ⅳ-(6)-11, 12> 「조선의 정치(1, 2)」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Ⅲ-(6)-11> 「조선의 시정(1)」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거론하며, 조선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선인의 안위를 위하고,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안위를 위해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 합방을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서 병합 후 20여 년 동안 각 방면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라고 응변하고 있다. <Ⅲ-(6)-12> 「조선의 시정(2)」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조선의 施政은 20여 년의 치적에 대해서 볼 때에 치안·산업·교통·통신·교육 등 모든 면에 걸쳐 놀랄 정도로 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합 후에는 우선 첫째로 치안을 엄격하게 하여, 불량배를 제거하고, 재판을 공평히 하여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산업의 개발이나 문화의 興隆의 기초도 이것 때문에 확립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의 개발입니다. 병합 전에는 국토개발이나 산업장려에 뜻을 두는 것을 잊고, 오로지 徵稅賦役이 강했기 때문에 물자생산도 적었고, 인민은 심히 민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병합 후에는 여러 안을 내어 각종 산업을 지도 장려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자의 총생산이 병합 당시에 비해 약 4배이고, 무역액도 비슷하게 약 10배에 달했습니다. 다음 교통·통신에 대해서 본다면, 국유철도는 점차 연장하여 병합당시의 약 3배에 이르고, 크고 작은 도로는 사통팔달하여 우마차의 왕래는 편리해지고, 전신·전화도 널리 통하게 되어, 商用이나 여행, 운수에 쓰여 그 편리가 더해진 것은 内外人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의 방면에서는 한층 두드러진 진보를 보았습니다. 병합전의 교육제도는 준비가 아주 안 되어, 교육을 받는 것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병합 후 학제를 정하고, 각종 학교를 설립,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동등하게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데 진력했습니다. <Ⅲ-(6)-12> 「조선의 시정(2)」

위에서 보듯이 일제는 식민사관의 입장에서 철저히 시혜론과 문명론, 발전론을 언급하였다. 식민사관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를 불식시키고자 그들은 항상 천황의 인정(仁政)정치와 식민지의 발전을 언급하였다. 식민지발전론은 뒤집어 보면 식민지인의 패배관과 열등관이 항상 동반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4. 결론 : 식민지 아동의 정체성 혼란과 상실

조선총독부수신서에서 보여준 사유나 행동양식, 사회관에 따라 나타난 여러 양상은 식

민지 아동에게 정신적인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제가 수신서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식민지 조선의 분위기는 여전히 반항적이고 방관적이며, 열등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의 수업내용과 달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나 아저씨들인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한 혼란은 정치 이념이나 교육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교과내용이 현실과는 정반대의 논리였기 때문에 단일한 사고를 지닌 아동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아동은 국가나 민족적 가치관념이 자신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정한 민족주의적 가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묻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신서에서 보듯이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라는 내용의 황국신민의 서사를 항상 외우며 수용하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본은 침략(전승)사관에 입각하여 수신서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자체가 일본의 국가주의적 의식이나 민족주의적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기에 이 식민지 아동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이 무엇인지 그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아동은 조선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 사이의 가치관에서도 더욱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양상 속에서의 혼돈 자체도 그렇거니와, 조선어와 일본어의 사용, 조선인임을 각인해주는 성명에서 개명을 통해 일본인화 되는 것(창씨개명), 삽화의 경우에서 보듯이 복식(의복)이나 일상습관에서 일본적인 것으로 바뀌진 일 게다가 날마다 근로보국대의 일원으로 총검술이나 체조훈련에다 노동동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그 속에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혼돈과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수신서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동양적인 가치와 서양적인 가치의 차이와 혼재는 또한 혼란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적인 가치와 조선의 문화적인 차이, 일본의 중국 침략과 중국의 열등함, 일본의 도덕과 조선의 도덕, 일본인물과 조선인물의 우수성과 열등성, 일본의 고대로부터의 지배와 조선의 속국과 예속성, 일본의 문명의 발전과 조선의 낙후성, 일본의 종교성과 조선의 종교성, 일본의 사상과 조선의 사상 등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더욱 그 혼란을 초래하였다. 수신서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오히려 동화정책들로 채워 넣음으로서, 특히 내선일체적 동화정책을 통해 국체의 일본정신을 더욱더 강조함으로써 극단적인 황국신민의 충성을 유발시켰으며, 일방적인 식민성으로 유도해 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신서에 나타난 좋은 일본인 육성의 기호에 따라 파생된 유형을 개인의 사유와 행동양식, 사회관에 두고, 그 구조를 통해 식민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양식에 따라 나타난 덕목들의 원천에는 자발적이고 자동화된 식민지인 양성을 위한 메커니즘이 동반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식민지 아동의 신체와 의식 그리고 행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여러 양식과 사회관이었다. 특히 아동의 사고와 행동은 진정한 근대인을 위한 덕목까지도 이념화된 의식의 주입으로 인해 자발적인 근대성을 이룰 수 없었고, 이것은 국체와 천황제의 지배이데올로기가 가미된 사회관으로 말미암아 정형화된

행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일제가 식민지 조선이나 아동을 개인이나 가정,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근대적인 의식을 일깨우고, 근대화 내지 발전시켰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자율성이 배제된 타율적이고 강제적된 일방적인 통치와 지배구조의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수신서의 덕목은 타율적이며 노예적인 덕목이자 도덕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탄생된 식민지 아동의 인간성은 식민성이라는 제한된 종속성만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1) 텍스트

- 朝鮮總督府(1913~1941), I·II·III·IV·V期 『普通學校修身書』, 『ヨイコドモ』, 『初等科修身』(總28卷),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韓國學中央研究院復刊.

2) 논문 및 문헌

-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 李熒娘역(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pp.16~23.
- 이병담(2004), 문철수공저, 일제강점기의 「普通學校修身書」 연구- 朝鮮總督府의 식민지 교육과 지배이데올로기-, 『일어일문학』 제24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231~50.
- _____(2005), 근대일본 아동의 탄생과 臣民 만들기- 『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제25집, 한국일본어문학회, pp.239~65.
- _____(2005), 근대일본의 실업교육 양상과 근로주의- 『尋常小學修身書』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26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267~90.
- 오성철(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서울: 교육과학사, p.22.
- 지호원(1997), 『일제하 수신과 교육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교육학박사학위논문, p.119.
- 崔由利(1997),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p.125.
- 伊々崎曉生·松島榮一編(1990), 『日本教育史年表』, 三省堂, pp.2~157.
- 唐澤富太郎(1961), 『教科書と國際理解』, 中央公論社, pp.15~85.
- _____(1968), 『教科書の歴史-教科書と日本人の形性』, 創文社, pp.1~17. p.222.
- 海後勝雄·鈴木清(1978), 『新版 道德教育』, 誠文堂新光社, pp.29~41.
- 中村紀久二(1990), 『復刊 國定修身教科書 解説』, 大空社, pp.1~141.
- 仲新·海後宗臣(1969), 『近代日本教科書總說 解説篇』, 大日本人刷株式會社, pp.100~31.
- 櫻井哲夫(1993), 『近代の意味-制度としての學校·工場』, NHKブックス
- 高橋濱吉(1927), 『朝鮮教育史考』, 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p.198.
- 山本信良(1973), 『近代教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ー』, 新泉社
- 平田宗史(1991), 『教科書でつづる近代日本教育制度史』, 北大路書房
- _____(1961), 『日本教科書大系(近代篇)』, 第二卷 修身(二) 講談社

要 旨

日帝強占期の朝鮮總督府の教育目標は、植民地兒童が植民地支配体制に順応するという、植民地近代人として養成し育成することであった。日本兒童に与えられた‘良い日本人’的な表象と記号は、植民地兒童においても‘良い國民’、あるいは‘良い日本人’であった。しかし、良い日本人的な植民地兒童は、自由な道徳的行動の主体として、信念や価値を持った存在ではなかった。植民地兒童は、教育政策や教科内容を通じて、徹底的に規制され統制された非自發的で他律化された、日帝の統制メカニズムに自動化された人間であった。

本研究では、日帝の植民地朝鮮に行った多様なイデオロギーが、植民地兒童の誕生に如何に働いたのか、そして植民性に如何ほど作用したのかに注目した。また植民地統治を、兒童の思惟・行動様式や社會觀の様相によって、類型化して見た。この類型を通じて、植民地兒童がどのように誕生し、日帝が目標する植民地的植民性に一般化されたのか、その本質と虚像を總体的に考察した。

キーワード：規律, 極端性, 勤勞, 隷屬性, 盲目性, 封建性, 上下關係, 社會觀, 誠實性, 順從性, 植民性, 朝鮮總督府, 倭奴主義, 行動様式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590-170) 전북 남원시 광치동 720 서남대 교양교직과

電 話 : 063-620-0058/019-493-6654

e-mail : lbd6654@hanmail.net